

사회



전국을 돌며 보육시설과 병원 등에서 자선을 악회를 열고 있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6일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광주애육원을 찾았다. 청심국제중 2학년 이영욱군이 흥부기를 열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청심국제中高生들의 '1등급 봉사'

광주애육원서 정성 가득한 자선공연 '감동'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정(情)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노래와 연주로 우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랬으면 좋겠어요."

16일 낮 12시 30분 광주시 북구 동립동 광주애육원,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불우 어린이 114명이 모여 사는 이곳에 때아닌 청아한 클라리넷 연주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화장실 옆 구석에서는 밀집연습을 하는 남녀학생들 뿐이 눈에 띄었다.

자선음악회를 30여분 앞둔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생들은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오후 1시 이영욱(청심중 2년)군이 준비한 흥부가 한 대목을 시작으로 '제 3회 정기여름 자선음악회' 막이 올랐다. 20명 남짓한 공간에 마련된 공연장에는 애육원 원생 100여명이 귀를 즐겁게 멀리서 음악을 듣고 있다.

공연장 뒤편은 연주팀과 함께 온 청심고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자리 를 지켰다. 학부모들은 공연에 앞서 짜장면 100그릇을 직접 만들어 아유원생들과 함께 먹는 등 따뜻한 부모

의정을 냄새였다.

자선음악회는 판소리와 바이올린 연주, 합창, 클라리넷 연주 등으로 이뤄졌다. 우리에게 익숙한 쇼스타코비치의 'The Second Waltz'가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울려퍼질 땐 장내가 일순간 고요에 잠기기도 했다.

15명으로 이뤄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Triple-C' 자선음악회 팀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을 찾아 전국 5개 도시를 돌며 자선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어느 성인 공연팀처럼 공연 스태프와 지역스태프, 기금조성스태프 등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광주화정초교 출신인 '지역스태프' 손숙정(16·1학년)양은 이번 공연에 앞서 모든 일정을 애육원 측과 사전 협의하고 조율하는 등 맡은 임무를 원벽히 해냈다.

김겸(17·2학년)군 등 '기금조성스태프' 3명은 전국 순회 공연에 앞서 교내 모금활동과 학부모 후원, 학원이나 기업 후원 등을 통해 공연기금 1천200만원을 마련했다. 기금은 운영 경비와 후원물품 구입 등에 쓰이고 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대학교 내년 입시

입학사정관 전형 50명 선발

광주교육대학교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으로 50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교육감이 모집인원의 250%를 추천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서류심사(30%), 적성 및 인성검사(30%), 심층면접(40%) 등으로 선발 한다.

지원조건은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 중 2개 영역이 각 5등급 이내여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종플루 예방 하려면

"틈만 나면 손 깨끗이 씻어라"

발열·콧물·인후통에 곧바로 보건소로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 감염으로 15일, 16일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법이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 관련 각종 사이트에는 신종 플루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신종 플루에 감염되면 발열(37.8도),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역질,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사망 사례에서 보듯 사람에 따라서는 급성 폐렴으로

발전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증상이 보이면 곧바로 인근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신종 플루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손이 단백질성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비누와 물을 사용해 씻어야 하며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은 손가락 사이 등 곳곳을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씻는 게 좋다. 특히 동남아 등 해외를 방문할 때도 체류기간 틈만 나면 손을 씻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양치질을 자주 하고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입과 코를 만진 후에도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 재체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허지로 입과 코를 가지고 하고, 기침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

재체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지고 해야 하며, 화장지를 버린 뒤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거나 1m 이상 멀리 떨어지는 게 좋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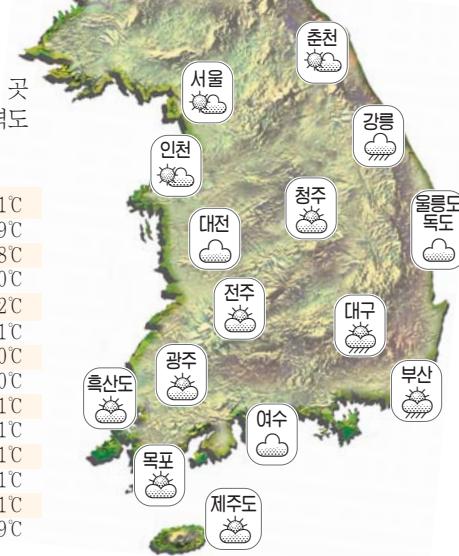
해물 05시 53분 해진 19시 19분

달밤 01시 42분 달점 16시 54분

시원한 소나기

가끔 구름이 많이 끼었으며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24/31°C
목포	구름많음	23/29°C
여수	구름많음	23/28°C
완도	구름많음	22/30°C
구례	구름많음	23/32°C
예남	구름많음	22/31°C
장흥	구름많음	23/30°C
고흥	구름많음	23/31°C
순천	구름많음	23/31°C
영광	구름많음	22/31°C
진도	구름많음	22/31°C
전주	구름많음	22/31°C
전남	구름많음	22/31°C
목포	구름많음	23/29°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동~남동	0.5~1.5m	曝露지수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0.5~1.0m	경고
남해 서부 일비다	먼비다	동~남동	1.0~1.5m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서해	남부 앞비다	동~남동	0.5~0.5m	목포
남해	서부 앞비다	동~남동	0.5~1.0m	16:41
남해 서부 앞비다	먼비다	동~남동	1.0~1.5m	여수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화)	19(수)	20(목)	21(금)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최저/최고	24/32	23/32	23/30	23/31
				22/30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홈페이지: www.gwansin.ac.kr / 대학원 605-1114

전화번호: 041-555-1114 / 041-555-1115

외국인 대상 휴스테이

광주시, 1천 가구 육성

광주시는 16일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외국인 대상 휴스테이(민박) 가정 1천 가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50가구, 내년 100가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휴스테이를 시범운영한 후 2015년까지 1천 가구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부터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독방과 아침식사, 욕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 중 1명이 최소한의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가정을 대상으로 휴스테이 험스트 희망신청을 받고 있다.(문의 062-613-3633) /윤현석기자 chadol@